

#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카지노 제안

### 김관영 의원, “싱가포르, 15년 예상 해안지역 개발을 카지노 도입해 4년만에 완료... 이를 준용해야”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이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이용 가능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모바일 등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던 과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과 전북의 낙후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경우 방조제 공사만 25년이 걸렸고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3% 매립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20%에 불과하다. 지금 같은 속도로는 제대로 된 새만금 구현이 힘들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안지역 개발을 카지노를 도입해 4년만에 완료했다. 새만금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다.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8조원, 일자리 23만개의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북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계기가 된다면 시행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의 대한 우려 요소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제한적으로만 출입하는 등 규제 수단과 강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3인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상곤(왼쪽부터), 이종걸, 추미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솔직히 카지노를

허용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전북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책임감을 갖고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의를 검토 한 뒤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해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도의원들 “새만금 카지노 신중해야”

육지책으로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이를 설불리 추진하기보다 복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장 보이는 이익을 쫓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과 폐해는 볼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사업은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의를 검토 한 뒤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해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김춘진 지역위원장, 더민주 도당위원장 단독 입후보

### 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선출될 듯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운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접수를 받은 결과, 김춘진 김계서·부안군지역위원장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춘진 후보는 오는 13일 전주오벨 리스웨딩홀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년 임기의 도당위원장으로 추대·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당 선관위는 1차 회의를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결과 후

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추대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선포하도록 의결했다.

김춘진 김계부안지역위원장은 제17대·18대·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 19대 국회 대한민국의원대상 야당 1위 의원과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정기국회사 5·18 특별법 상법·공수처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기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주주총회시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중국방문, 여당 일야당이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의 방중(訪中)을 놓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굴욕의 교라 비판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1야당이 우리 당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의 독설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 사드대책위 소속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손혜원·김병욱·박정·신동근·소병훈 등 6명의 의원은 오는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사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 대변인은 “중국의 과잉 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만해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미치는 학자 등 지식인들에게 과잉대응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하고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외교는 대한민국 자존심만 구걸 뿐”이라며 “굴욕적 중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 전북 청년정책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청년단체연합 창설·청년정책단 운영을”

전북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청년단체연합(가칭)’을 창설하고 도의회 청년정책단을 구성, 상시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의회세미나실에서 ‘전북 청년정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년 조례 제정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타지역 사례를 통해 청년의 창업과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년기본조례와 청년문화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뒤를 이어 발제에 나선 비영리단체 ‘청년들의 오운덕’ 연구원은 1천만원의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를 위한 일반로 허덕이는 전주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 결혼, 연애에 희망마저 포기한 청년들의 문제는 곧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청년정책의 시행을 주문했다.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를 맡은 정진세(비례) 도의원은 “전북의 청년 인구는 25%를 넘고 있지만 전북도의 청년 예산은 0.7%에 불과한 현실이다”며 타 시도와 비교해 열악한 전북도의 청년정책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진세 의원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라북도 청년단체연합(가칭)’을 창설하고 도의회 청년정책단을 구성,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화수(정읍2) 위원장은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시달리며 결혼과 연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채 고통 받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예산지원에서 청년들은 배제돼 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복지 포괄리즘이나 도덕적해리로 폄하 시켜선 안 되며, 청년들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